

희귀보호종 '범게' 대량생산 길 텃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종묘 생산 성공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희귀 보호종 대량생산 '범게'(Orithya sinica·사진) 종묘 생산에 성공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국제 갯벌 연구센터는 최근 "서해안 모래 갯벌에 서식하는 '범게' 종묘 2만마리를 생산해 영광 두우리 해안에 방류했다"고 5일 밝혔다. 범게 알을 부화, 종묘를 생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류한 어린 게는 등딱 크기가 1cm 가량으로, 지난해 초 갯벌에서 채집한 어미 게 10여 마리로부터 알을 채집해 부화시킨 후 5번의 탈피를 거쳐 3~4주 키운 것이다.

등과 다리의 선명한 호랑이 줄무늬가 특징인 범게는 썰물 때 물이 드러나는 간조선 아래 모래가 있는 곳에 서만 서식하는 종(種)으로 그동안 생태나 습성, 서식환경 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서해안에서 중국 발해만 연해까지 분포해 있다.

하지만 특이한 외형과 담백한 맛, 고단백 식품으로 소문이 나면서 무분별한 어획까지 가세해 자원량 감소가 우려돼 왔다.

갯벌 연구센터는 범게의 자원보존은 물론 산업화 가능성도 타진하기 위해 증식과 복원 연구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연구센터는 방류를 통해 서식 생태와 습성을 확인하고 전남 연안에 서식하는 다른 갯벌 계류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갯벌연구센터 이경식 소장은 "종묘 생산과 방류가 귀중한 생물자원의 갯벌 계류의 보호와 가치 제고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호종으로 분류된 희귀종에 대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남 갯벌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갯벌에서 자원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계류는 범게와 남방방게·갯게·붉은발 말뚝게·흰발 논게 등 5종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대불산단에 '산·학융합지구' 조성

목포대·전남도·목포시·영암군 등 참여 5년간 470억 들여 조선·해양 특화 육성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에 '산·학(産·學) 융합지구'(조점도)가 조성된다.

목포대는 6일 대외협력관 대강당에서 '대불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단(단장 송하철·이하 사업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사업단은 목포대를 비롯해 전남도, 목포시, 영암군, 현대 삼호중공업 등 37개의 참여기관과 220여명의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전남권 최대의 산학 융합 프로젝트이다.

사업단은 앞으로 5년간 총사업비 470억 원의 지원을 받아 대불산단을 기반으로 조선·해양 분야에 특화된 산·학 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단 내에 산·학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들어선다. 근로자 평생학습,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선(先) 취업·후(後)진학 프로그램, 맞춤형 인력양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산(産)과 학(學)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산



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산·학 융합지구는 일터, 배움터, 즐거움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는 행복산단단지(QWL 밸리) 조성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한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김양식 재해보험 해남 시범지역

해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해남군은 "해남 김 양식 면적이 7470ha(1238 어가·9만7108책)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를 차지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김 양식 재해보험이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 김 양식 어업인은 해남군 수협에 다음달 31일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재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양식 수산물과 시설물 전체다. 시설 설치 후 30일이 지나야 한다.

재해보험은 국가 보조금, 지방비 지원액을 합해 총 보험료의 79%를 지원받는다. 가입 양식어가는 보험료의 21%만 내면 된다.

군은 이상기온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대상은 현재 전복·납치·굴·조피볼락 등 모두 11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2013년산 원활한 김 생산을 위해 시설물 정비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지역에서는 지난해 25일부터 송지 어란과 화산 구성에서 물결이 생산되고 있다.



팔기 모종 손길 분주

국내 주요 딸기 생산지인 담양군 창평면 딸기재배 농가들이 딸기 모종을 손질하고 있다. 담양산 딸기는 재배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과 기후의 영향으로 당도와 색도가 우수해 도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함평 지방상수도 고객만족도 상승

k-water 관리단 조사

함평군 지방상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k-water 함평수도관리단은 "지방상수도 위·수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호산경영 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년도 지방상수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년(73점)대비 2.57점 상승한 81.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상수도 급수구역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7~10월 15일 실시했으며, 수도검침·수질·수돗물 공급관리·직원 업무처리 만족도 등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함평군과 k-water 함평수도관리단은 지방상수도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 당일 민원 처리율을

99%까지 끌어올렸다.

또 전월대비 검침량이 늘어난 수용가에 대해서는 고객 관리사가 직접 민원을 만나 육내누수 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해 요금 민원을 최소화했다.

이범욱 함평수도관리 단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품질 좋은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water 함평수도관리단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선진화된 물관리 기법을 도입, 함평군민에게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함평=황은학기자 hwang@

영산강 둔치에 역사밭 만든다

나주, 죽산보 인근 5ha... 체험학습장 활용

영산강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저류지와 영산강 둔치관리권이 해당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나주시가 영산강 둔치를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나주시는 내년 3월 영산강을 중심으로 나주대교 둔치와 다야수변공원, 죽산보 인근에 5ha의 면

적에 대규모 역사밭을 조성, 가을이던 강물과 역사밭의 어우러진 풍경 있는 볼거리와 체험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현재 영산강변에 서식하는 물억새를 중점적으로 식재, 자생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

른 사업비는 내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국비)로 사용한다.

나주시 김정남 재난관리과장은 "영산강 둔치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봄에는 유채꽃밭과 가을이면 억새꽃밭을 가로지르는 자전거도로 이용자와 관광객들이 한층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j@

신안 비금-도초 중·고 통폐합

도초고 거점형, 비금중 기숙형 학교 육성

지난 1996년 다리가 놓이며 이어진 신안 비금도와 도초도에 중·고등학교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상욱)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교육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신안교육청은 도초고와 비금중, 비금중과 도초중을 통·폐합해 도초고를 거점형 고등학교로, 비금중을 기숙형 공립중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안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거점학교 육성 설명회를 시작으로 추진협의회 개최, 제재비 찬반 논의, 주민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비금·도초 지역 거점학교는 2015년 3월 개교예정이다.

신안교육청은 최근 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동의함에 따라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거점형 고등학교 육성 통·폐합 신청서를 전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문상욱 교육장은 "비금·도초지역 거점학교를 육성해 신안의 인재유출을 최소화하겠다"며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신안에서 교육받는 지역중심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나주시 인재개발 우수기관

나주시가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으로 선정됐다.

나주시는 최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 수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패를 수상했다.

나주시 최기복 행정복지국장장은 "많은 직원들이 자기개발에 참여하고, 생산적 조직을 위해 노력하여 온 결과를 인정받게 됐다"며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대학원 개설 ▲외국어 전문과정 ▲리더십 교육 ▲나주세움 연구모임 ▲국내의 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u@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주류서비스
성인1인용, 평일평문 고객만족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택1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종을 하지않아 황해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주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